

소비자가 평가한 농산물 안전성 기준에 관한 연구 - 광주지역 소비자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

윤영석* 정호연** 조우석***

키워드

농산물 안전성 기준(Safety Standards of Ag. Products), 가상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생산자 중심의 농산물 안전성 기준을 소비자 중심으로 발상을 전환하여 4가지 안전성 접근방식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사회 전체적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며, 좀 더 현실적인 안전성 기준을 논의해 보는 것에 있다. 연구 방법으로는 제시된 4가지 안전성 접근방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 소득, 학력별 교차분석을 하였으며,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을 가상가치평가법(CVM)으로 수치화 하여 곡류, 채소류, 과일류의 안전성 기준 확립으로 증가하는 소비자 편익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 확립으로 사회전체적인 후생이 증가되었으며 경제적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농산물 안전성 인증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다.

차례

- I. 서론
- II. 이론적 고찰
- III.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분석
- IV. 요약 및 결론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I. 서론

우리경제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불과 60년 만에 국민소득 2만 달러, 세계 12위의 경제대국 등의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내었으며 이와 함께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한 축인 소비수준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다. 소비 수준 향상으로 인한 삶의 풍요로움과 84%의 엄청난 대학진학률 등에서 보여지는 고학력자 증가로 소비성향이 과거의 값싸고 양이 많은 것을 선호하는 후진국형 소비성향에서 조금 비싸더라도 안전하고 고품질 상품을 선호하는 선진국형 소비성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특히 ‘Well-Being 식품, 친환경 농산물’로 대변해 주듯이 농산물 및 식품에 있어서도 소비자의 고품질·안전한 농식품으로의 소비성향 변화는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잔류농약검출, 광우병과 같은 질병 발생 등으로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전성은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 소비자들은 일반 농식품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지만 위생과 안전성 측면에서 인증이 된 믿을 수 있는 농식품의 구매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소득이 높은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소득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경향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비자들의 농식품에 대한 선호도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국내에서 안전성을 입증하는 각종 인증제도가 최근 들어서 제도적으로 신생되고 있거나 그전에 있던 제도들 같은 경우에는 개선되고 있다. 국내 농업과 식품 관련 학계 또한 농산물 및 식품 안전성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그 성과들이 연구논문으로 제시되고 정책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농식품 안전성 인증제도가 연구논문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적 개념인 안전성에 관한 정의 및 논의는 제시되지 않고 있다. 안전성이란 용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이지만 정작 안전성이 무엇인지 규정하기에는 어려움과 논란이 있다. 이는 안전성의 사전적 의미가 뜻하는 ‘인간의 신체나 생명을 위협으로부터 지키는 안전의 정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정성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의 견해나 주장이 틀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는 쇠고기 수입 및 농산물 수입에 있어 안전성 문제가 가시화될 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안전성 기준의 관점을 다르게 제시 하여 사회적 정치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농산물의 안전성개념 확립이 경제적으로 왜 필요한 것인지 이론을 통해서 고찰할 것이며, 둘째 광주 북구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농산물 안전성 기준에 있어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어떤 농산물을

안전하다 생각하는지 분석하여, 농산물 안전성 기준을 기존의 해석보다 소비자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2.1. 안전성 기준 및 국내 현황

2.1.1 안전성 기준

과거 안전성의 기준은 절대적인 의미로 규정되었다. 외국의 사례에서 찾아보면 1958년 미국 델라니 조항에서 안전성의 절대적 기준을 찾을 수 있다. 이 조항에서 안전성이란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은 완전히 해가 없어야 하고 아무리 미미하더라도 건강에 장애 위험이 있는 것은 사용 및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제로위험기준을 의미하는데 식품에 어떠한 위해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위험과 불확실성에 둘러싸인 현대 사회에서 제로위험기준은 비현실적이다. 제로위험기준으로 안전성을 정의한다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반하여 현대사회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은 절대적인 의미가 아닌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모든 농축산물과 식품은 다양한 미생물과 미량의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100% 제로위험 조건으로 안전하다고는 장담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험은 있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위험 또는 위해 물질이 최소인 식품을 안전한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은 과학적 실험에 의해 산출된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최소위험기준으로 최소위험기준이란 매우 작은 위험 혹은 매우 작은 위해물질은 무시할 수 있다고 보는 원칙이다. 무시할 수 있는 위험의 기준으로는 보통 인구 100만 명 당 1명 정도의 발병 가능성 등과 같은 통계적 확률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안전성의 기준이 상대적인 개념으로 판단됨으로, 통용되는 농식품 안전성의 기준을 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적정한 안전성의 기준은 그 기준이 달라질 때 나타나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의미에서 사회경제적 요인과 소비자들의 심리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등 가변적일 것이다. 안전성의 가변성, 불확실성, 모호성으로 인해 농식품 안전성 기준은 과학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예방주의원칙 하에 소비자와의 사회

적 합의를 통해 도출할 수밖에 없으며 그 사회적 합의는 정부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2.2 국내 안전성 기준 현황

농식품 안전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우수농산물 관리(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위험요소 중점관리(HACCP :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가공식품 KS인증, 대한민국 LOHAS인증, Non-GMO마크 등 여러 안전성 제도 등이 있다. 안전성 제도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인증제도는 대표적인 농식품의 안전성을 규정하는 제도이다. 친환경 농산물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해주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비교적 가장 잘 알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목적은 첫째, 농약이나 화학비료 사용을 줄임으로써,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있다. 둘째,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둔갑 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셋째,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공급체계를 확립시키는 데 있다.

표 2-1.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저농약 농산물	• 화학비료는 권장시비량의 1/2 이내 사용 • 농약 살포 횟수 - “농약안전 사용기준”의 1/2 이내 • 사용시기 -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 • 잔류농약 -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1/2 이하 (제조제 사용 안함)
무농약 농산물	•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음 •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 사용
유기농 농산물	• 3년 이상 재배한 농산물 •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음 전환기간 : 다년생 작물: 3년, 그 외 작물 : 2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저농약 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로 나눈다. 저농약 농산물의 농약 살포 횟수는 ‘농약안전 사용기준’의 1/2 이내로 사용해야 하며, 농약 사용 시기는 안전사용기준 시기의 2배수로 늘려서 사용하며, 잔류농약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기준’의 1/2 이하가 되어야 하며, 특히 제조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

다. 무농약 농산물은 합성농약 사용을 금지 하고 하며,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 이하로 사용하여야 한다. 유기농 농산물은 3년 이상 재배한 농산물로 합성농약 및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전환 기간은 다년생 작물은 3년으로, 그 외 작물은 2년으로 해야 한다. 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표시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의미한다. 이 인증제도에서는 농산물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농산물은 우리가 보통 접할 수 있는 농산물을 의미한다. 일반농산물은 안전성의 기준에서 보면 상대적 의미인 최소한의 위험만을 만족시키는 농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유기농산물과 무농약 농산물의 경우 절대적인 기준에서 일정 기준에 도달해야만 안전성이 인증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에서는 위에서 설명한 절대적 안전성 기준과 상대적 안전성 기준이 공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완벽한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절대적인 기준은 용어 그대로 위험성이 0이 되는 제로위험성을 의미하지만 어느 제도에서도 제로 위험기준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제로위험성을 만족하더라도 그 제도는 현실세계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농산물 안전성 인증제도는 소비단계를 제외한 생산자단계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의 기준을 정의할 때 한계가 있다.

2.2. 농식품 안전성 기준 확립의 효과

2.2.1 소비측면

소비자에게 있어서 농산물의 가격은 매우 중요한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 지표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농식품 시장을 구분하자면 일반농산물 시장과 안전성이 중시된 농산물 시장으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둘의 가격 차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표적으로 안전성에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수입농산물 소비성향에 대한 선행 설문조사¹ 자료를 살펴보면 수입농산물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6%가 안전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대답하였으며, 또한 일반 국산 농산물과 수입

¹ 정호연 외 (2007), 『수입농산물에 관한 소비자의 구매 인식 조사』,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산 농산물의 가격이 동일하다면 수입농산물을 구매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84%가 수입농산물을 구매하지 않고 국산 농산물을 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서 통상 수입농산물이 관세를 제외한 경우 또는 관세를 포함하더라도 국산 농산물보다 가격이 낮은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감안한다면 국산 농산물의 가격과 수입농산물의 가격 차이는 더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국내로 적용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인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 간의 가격 차이는 더 안전한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자의 지불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한 농산물에 대해 추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로 해석할 수 있다.

2.2.2 생산측면

안전성의 기준을 절대적 의미로 생각한다면 안전성의 기준을 지킬 수 있는 농산물 생산하는 농가는 얼마나 될까? 절대적인 의미로 안전성의 기준에 접근하면 생산되는 농산물은 없을 것이다. 생산에 있어 농산물은 어느 정도의 위해성을 감수해야지 제로 위험으로 접근한다면 시장에서는 어떤 농산물도 거래되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안전성 접근 방식인 상대적 의미로 접근할 때, 생산자들이 안전성 기준을 무시하고 생산하는 경우 생산자들은 이익을 얻을 충분한 동기가 발생하며 이러한 동기의 발생은 안전성의 기준을 무시하게 되며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만 시장에서 거래되어 어느 누구도 농산물을 구매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왜곡의 발생은 시장의 생성을 어렵게 만들며 결국 안전하지 않은 농산물과 안전한 농산물이 한 시장에 공존하는 레몬마켓²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2.2.3 후생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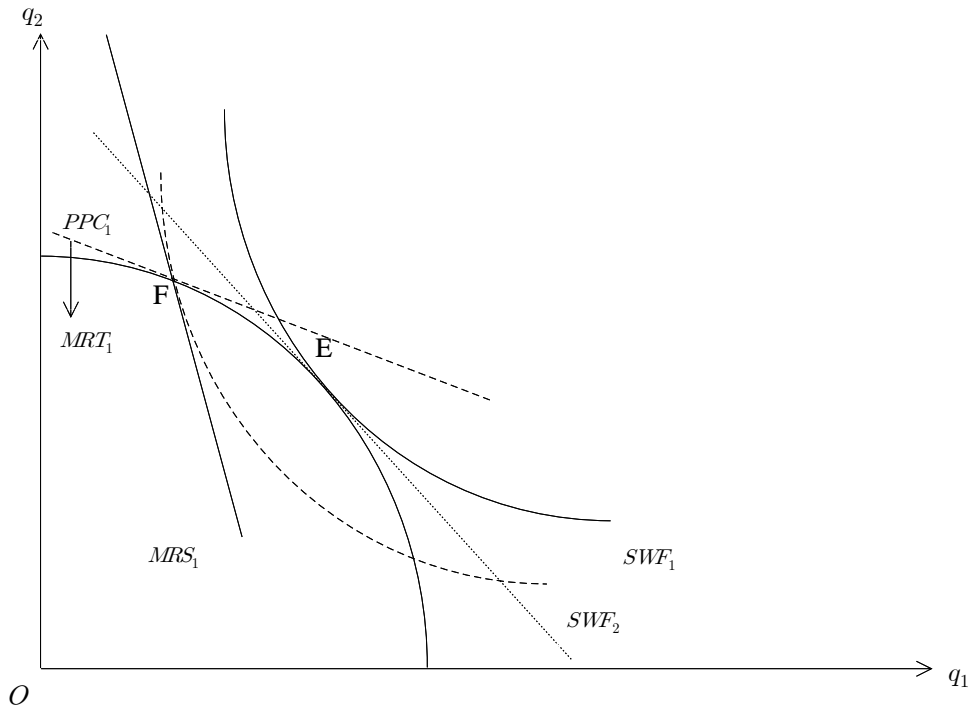
후생측면에서는 파레토 최적 상태인 후생경제학 제 1법칙을 살펴보면 이론적으로 확

² Akerlof(1970) 중고차시장 분석, Rothschild and Stiglitz(1976) 보험시장, Spence(1971.3 교육과 관련된 노동시장 등. 레몬마켓: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하여 소비자나 다른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못해 질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저급의 재화나 서비스가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

인 할 수 있다. 파레토 최적의 상태를 찾아가기 위한 소비자와 생산자의 효용극대화 행동은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는 소비자의 중심에서 안전성의 기준을 정하면 된다. 대표적인 예로 농산물 생산자에게 안전성 위반 벌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각종 세금이 제외되어 있지만, 토양오염, 안전성 저해 등의 이유로 위험요소에 대하여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농산물은 수요 있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조세 회피를 통한 세금을 전가시켜 소비자에게 세금이 귀착되는 현상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세금은 분명히 생산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단지 소비자의 효용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또한 가격 왜곡 및 후생의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소비자에게서 효용을 빼앗고 생산자의 효용을 늘려준다는 것 또한 파레토 최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는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을 들 수 있다.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줄이는 만큼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정부의 철저한 감시가 병행되면 생산자는 분명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위의 세금에서 나타난 전가와 귀착의 문제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는 보조금을 수령한 생산자들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라도 정부의 감시를 피하려 한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안전성의 중심에서 생각해야 할 소비자들은 논의에서 배제된 상태로 생산자만 이득을 얻는 상황이 발생한다. 세금부과에서는 소비자, 생산자 모두 세금을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보조금의 경우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안전성의 기준 설정으로 인한 후생효과는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 또는 해악을 미치는 사람에게 부담을 줄 것인가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양측 모두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1. 세금효과 및 보조금 효과³

2.2.4 안전성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가?

안전성의 기준은 절대적인 의미, 상대적인 의미 모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대적인 의미는 현실에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상대적인 기준은 현실에서 더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인 의미에서도 생산자의 입장보다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안전성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생산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 설정은 정부의 감시비용, 보조금 등 정부의

³ q_1 (농산물)에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SWF_1 이 SWF_2 로 하방 이동하게 되면 일반균형점은 E 에서 F 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때 $MRS_1 = \frac{(1+t)p_1}{p_2} = (1+t)MRT_1$ 이 된다. 이러한 세금 부과는 p_1 (농산물)의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생산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기 때문이다. 보조금의 경우 반대의 입장에서 소비자들은 더 낮은 가격에서 상품을 구입하게 되는데 이는 생산자 보조금의 일부를 소비자들이 빼앗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 설정으로 소비자들이 얻는 효용의 일부를 생산자에게 이전시킬 수만 있다면 생산자의 효용도 상승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에서 생산자에게로 효용의 이전이 반드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고 생산자의 이익을 소비자들이 책임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

Ⅲ.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분석

3.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배경

표 3-1. 조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징

연령		학력		자녀 수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41-45세	21	고등학교 졸	52	1명	2
46-50세	49	전문대졸 이상	48	2명	77
51-55세	27			3명	18
56세 이상	3			4명	2
				5명 이상	1
합계	100	합계	100	합계	100

직업		소득	
구 분	빈 도	구 분	빈 도
주부	40	150 이하	8
회사원	8	151-200	6
공무원	18	201-250	26
전문직	10	251-300	22
자영업	24	301 이상	38
합계	100	합계	100

본 설문은의 조사지역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과 양산동과 오치동 등이다. 조사기간은 2009년 8월 20일부터 동년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농산물 및 식품을 주로 구매하는 구매층인 40대 이상의 주부를 주요 대상으로 한 성인 남녀 120명을 무작위 추출로 선정하여 결측치를 제외한 100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조사 방법은 1:1면접조사를 선택하였으며, 표본추출은 편의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조사결과 연령은 46세에서 50세까지가 49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소득은 301만원 이상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1만원 이상부터 250만원 이하는 26명으로 조사되었다. 직업은 주부가 4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자영업과 공무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자가 52명이며,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자가 48명이였다. 또한 자녀 수는 2명이 77명으로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3.2. 농산물 안전성 인증기준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안전성에 관련된 대표적인 제도인 친환경농산물제도와 같은 인증제도의 인식 여부는 ‘예’에 46%, ‘아니오’에 54%가 대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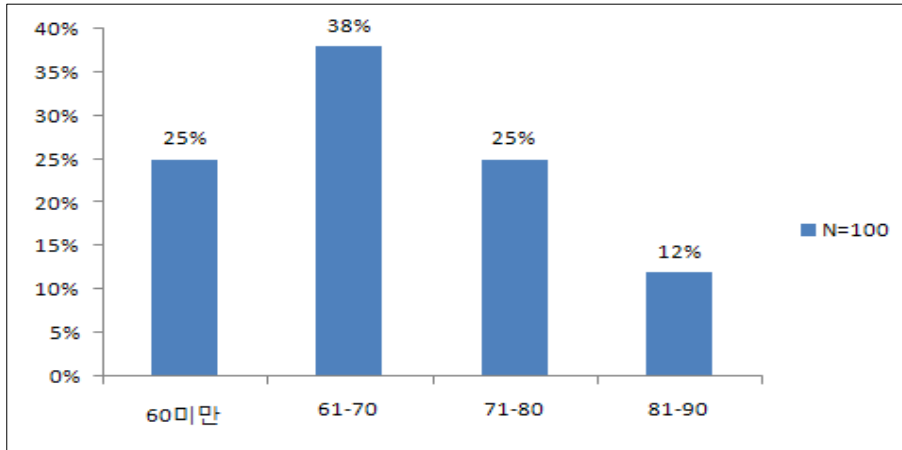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러한 제도의 안전성 신뢰기준 응답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37%로 긍정적인 답변을 한 7%보다 많았으며, 나머지 사람들은 중립적인 의견을 보였다.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안전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면서도 아직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기준이 모호하거나 어려워 소비자들에게 잘 인식되고 있지 않으며 안전성기준 신뢰에 관한 답변에서 보통으로 생각한 사람들의 경우 안전성기준에 어떤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친환경 농산물의 구매현황을 살펴본 결과, 자주 구매하는 사람들이 37%이며, 가끔 구입하는 사람이 63%로 응답되었다. 만약 안전성에 대한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확산될 수 있다면 친환경 농산물 구매 또한 증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에 소비자의 만족도에 60점 미만이 25%, 61점에서 70점이 38%, 71점에서 80점이 25%, 81점에서 90점에 12%의 의사를 밝혔다. 평균은 68.65점으로 친환경 농산물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의 원인은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대부분 가끔 구매하고 있으며 안전성기준에 대해 신뢰가 좋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가장 큰 요인은 농산물 인증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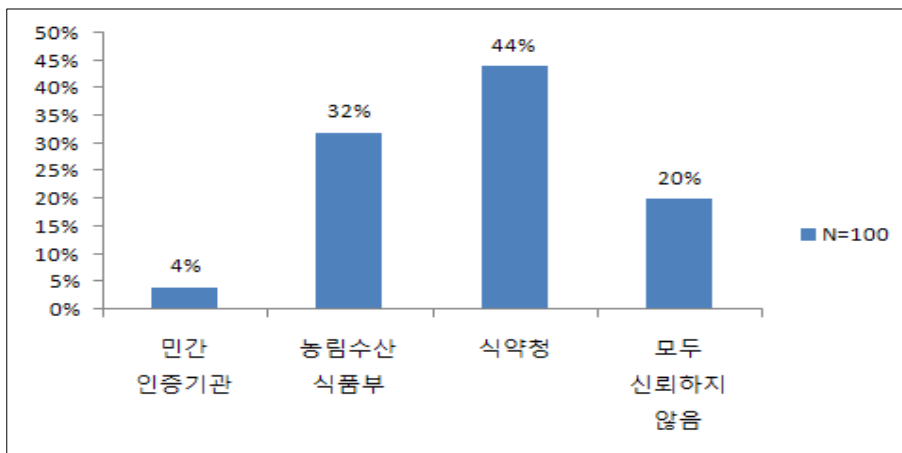
소비자들에게 농산물 인증제도가 잘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필요성이 있다.

그림 3-1. 친환경농산물제도에 대한 만족도



3.3. 인증기관에 대한 신뢰정도

그림 3-2. 인증기관별 신뢰정도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44%로 가장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모든 안전성에 관련된 행정업무 및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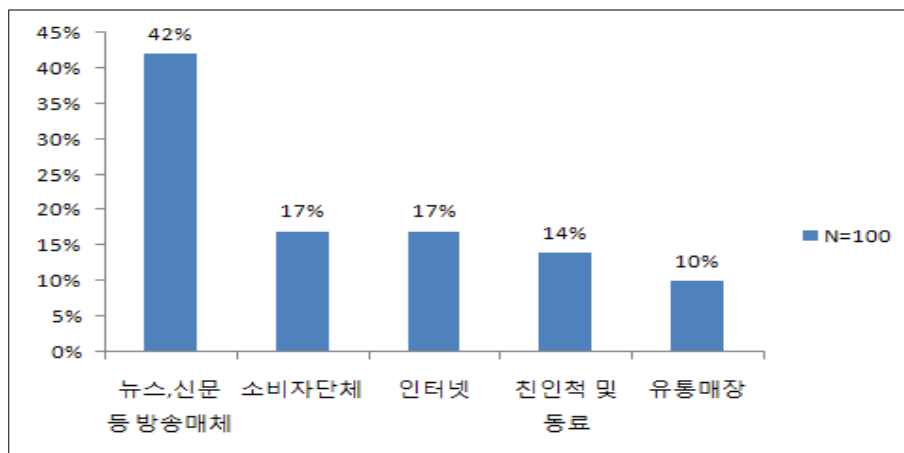
문이라 추정할 수 있다. 농림수산물부는 32%로 다음으로 신뢰하는 기관으로 나타났으며, 민간 인증기관 또한 4%로 신뢰한다고 나타났다. 이에 반해 어느 정도의 사람들은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도 있었다.

3.4.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획득매체

농산물 안전성에 관한 정보는 뉴스와 신문 등의 방송매체에서 가장 많이 획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2%가 응답하였는데, 보통사람들의 경우 방송매체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가장 빠른 수단이기 때문이다. 소비자단체와 인터넷으로도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으며, 친인척 등의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많은 정보를 획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들이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정보를 많이 획득하는 사람도 있었다.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더욱 진척되면 인터넷의 정보획득 매체 기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세대를 살아가는 인터넷 세대들이 미래의 소비자가 된다는 점과 정보의 획득이 대부분 방송매체 및 인터넷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미디어 매체가 정보 확산 및 획득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미디어 매체에 대한 의존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정보획득 매체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 질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3. 농산물 안전성 정보획득 매체



3.5. 안전성의 주관적 기준에 대한 개념 성립

안전성에 대하여 주관적인 몇 가지 기준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첫째로 통계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어떤 농산물을 100만 명이 섭취한 후 1명이 아팠을 경우’를 상정하였고, 둘째로 사전(事前)적 접근방법인 ‘농산물 구매 직후 물에 씻어서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로 상정하였으며, 셋째로 직관적 접근방법으로 ‘외관상 농산물을 살펴보았을 때 깨끗한 경우’를 상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사후(事後)적 접근방법인 ‘농산물 섭취 후 짧은 시간 안에 아프지 않은 경우’를 상정하였다.

<표 3-2>을 살펴보면 사전적 접근방식과 직관적인 접근방식, 통계적 접근방식 등의 순으로 소비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적 접근방식은 소비자들이 농약, 화학 비료와 같은 농산물의 안전성을 구입 전에 먼저 판단하고 구매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입장에서 별도의 위해요소 처리 없이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주관적 기준으로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사전적 접근방법은 절대적인 의미의 안전성 기준과 상대적인 의미의 안전성 기준이 공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절대적인 의미로는 위해요소가 없어야 함을 의미하며, 상대적인 의미로는 물에 씻어서 없어진다면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관 상 농산물이 깨끗한 경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직관적인 접근방법은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농산물은 안전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표 3-2.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평가⁴

접 근 방 식	총점	점수
통계학적 접근방법 (어떤 농산물을 100만명이 섭취한 후 1명이 아팠다면 그 농산물은 안전하다.)	5325	53.25
사 전 적 접근방법 (농산물 구매 후 물에 씻은 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안전하다.)	5650	56.50
직 관 적 접근방법 (외관상 농산물을 봤을 때 깨끗하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5525	55.25
사 후 적 접근방법 (농산물 섭취 후 짧은 시간 안에 아프지 않았다면 안전하다.)	4925	49.25

⁴ 매우 안전부터 매우 불안전까지 5점 척도로 계산하였으며, 해당항목에 대하여 100, 75, 50, 25, 0점을 부여하였다.

<표 3-3>을 살펴보면 연령이 46세에서 50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직관적 접근방식과 사전적 접근방식에 대해 많은 점수를 주었다. 하지만 직관적 접근방식의 경우 매우 안전하다는 사람이 전체 연령에 걸쳐 0이라는 점과 사전적 접근방식에서 매우 불안을 느끼는 사람이 전체 연령에 걸쳐 0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전적 접근방식이 상대적으로 더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조사대상자의 연령별 농산물 안전성 평가

연령	접근방식	통계적 접근방식					사전적 접근방식				
	점 수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41세 - 45세		9%	12%	6%	0%	0%	6%	5%	3%	7%	0%
46세 - 50세		11%	18%	12%	6%	13%	4%	16%	19%	10%	0%
51세 - 55세		2%	0%	0%	1%	7%	0%	8%	9%	10%	0%
56세 이상		2%	0%	0%	1%	0%	1%	2%	0%	0%	0%
연령	접근방식	직관적 접근방식					사후적 접근방식				
	점 수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41세 - 45세		0%	0%	15%	6%	0%	0%	5%	16%	0%	0%
46세 - 50세		0%	23%	22%	3%	1%	3%	11%	27%	5%	3%
51세 - 55세		0%	13%	11%	0%	3%	0%	1%	16%	7%	3%
56세 이상		0%	2%	1%	0%	0%	0%	0%	1%	2%	0%

우선 소득에 따른 직업의 분포를 살펴보면 301만원 이상인 사람들의 경우에 직업이 공무원 또는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25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회사원과 주부가 많았다. 20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였다. <표 3-4>을 살펴보면 소득이 301만원 이상인 사람들은 통계학적 접근방식, 직관적 접근방식과 사후적 접근방식에 대해 많은 점수를 주었다. 이중 직관적 접근방식에 대해 가장 많은 점수를 주었다. 25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사전적 접근방식에 많은 점수를 주었으며 201만원 이상 250만원 이하의 사람들은 사후적 접근방식에 많은 점수를 주었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소득별 농산물 안전성 평가

접근방식 연령		통계적 접근방식					사전적 접근방식				
점 수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150만원 이하		0%	8%	0%	0%	0%	0%	0%	1%	7%	0%
151만원~200만원		0%	3%	3%	0%	0%	0%	1%	5%	0%	0%
201만원~250만원		7%	14%	3%	1%	1%	0%	10%	9%	7%	0%
251만원~300만원		0%	2%	4%	7%	9%	4%	11%	7%	0%	0%
301만원 이상		9%	3%	14%	3%	9%	7%	9%	9%	13%	0%
접근방식 연령		직관적 접근방식					사후적 접근방식				
점 수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150만원 이하		0%	0%	3%	4%	1%	0%	0%	7%	1%	0%
151만원~200만원		0%	2%	4%	0%	0%	0%	3%	3%	0%	0%
201만원~250만원		0%	2%	23%	1%	0%	3%	6%	15%	2%	0%
251만원~300만원		0%	20%	0%	2%	0%	0%	5%	13%	4%	0%
301만원 이상		0%	14%	19%	2%	3%	3%	3%	22%	7%	6%

<표 3-5>를 살펴보면 학력이 대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들은 통계학적 접근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들은 통계학적 접근방식보다는 사전적 접근방식, 직관적 접근방식과 사후적 접근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사람들은 이중 사전적 접근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과 소득을 동시에 고려할 경우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보통 최종학력이 높았으며, 통계학적 방법과 직관적 방법에 점수를 높이 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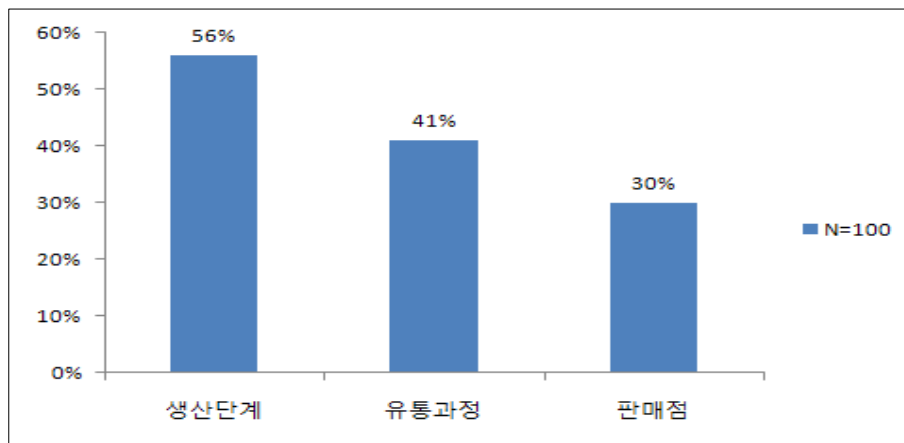
표 3-5. 조사대상자의 학력별 농산물 안전성 평가

접근방식 학력	통계적 접근방식					사전적 접근방식				
점 수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고등학교 졸	5%	20%	6%	3%	18%	4%	14%	26%	8%	0%
대학교 졸	11%	10%	18%	8%	1%	7%	17%	5%	19%	0%
접근방식 학력	직관적 접근방식					사후적 접근방식				
점 수	100	75	50	25	0	100	75	50	25	0
고등학교 졸	0%	21%	27%	1%	3%	0%	11%	39%	2%	0%
대학교 졸	0%	17%	22%	8%	1%	3%	6%	21%	12%	6%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유통단계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유통단계를 생산단계, 직접유통단계, 판매점단계로 축소하여 살펴보았다.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은 생산단계에서 농약, 화학비료 등의 물질을 적게 사용해야 한다고 56%가 응답하였다. 그리고 유통과정에서 관리와 판매점에서의 관리가 각각 41%, 30%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는 생산단계에서 농약과 화학비료와 같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주관적 기준의 의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에 씻은 후 섭취 가능 수준의 농약과 화학비료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수준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에 생산에서 약간의 지장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비자의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생산을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림 3-4. 농식품 안전성 중점관리 유통단계에 대한 의견



3.6. 품목에 따른 소비자 편익분석

농산물 안전성 확립으로 소비자는 농산물을 구매 시 그 이전보다 신뢰성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어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도 즉, 효용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효용 증가분은 설문을 통한 가상가치평가법(CVM)⁵으로 수치화하여 나타낼 수 있으며 본 논문에서

⁵ CVM은 가상가치평가법(假想評價法, contingent valuation method)으로 환경을 위해서는 지불해도 좋은 지불의사(意思)금액을 알아봄으로써 환경이 지니고 있는 가치를 금

서는 소비자에게 ‘안전성 기준의 확립으로 안전성이 확고히 확보되는 경우 기존 농산물 가격의 몇 %를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항목으로 채소류, 곡류, 과일류의 작목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3.6.1 편익 분석 방법

1인당 연간 소비액 = 가격(1Kg) × 1인당 연간 소비량

1인당 평균 품목 연간 소비액 = $(\sum_{i=1}^n \text{품목}_i) / N$

1인당 작목별 지불의사 금액 = 1인당 평균 품목 연간 소비액 × 평균지불의사 %

소비자 작목별 잉여 = 1인당 작목 지불의사 금액 × 인구 수

3.6.2 곡류

본 논문에서는 곡류 중 대표적인 작목으로 쌀, 보리쌀, 밀, 콩, 옥수수를 선정하였으며 2008년 기준으로 가격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의 통계자료를 통해 1인당 곡류의 연간 소비액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1인당 곡류 작목별 평균 연간 소비액은 40,184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설문조사결과 평균 지불 의사정도는 0.0982로 조사 되었다.

이를 통해서 1인당 곡류 지불 의사 금액을 계산한 결과 $40,184 \times 0.0982 = 3,946$ 원으로 도출되었으며, 200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를 약 5천만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곡류에 관한 안전성 기준 확립으로 소비자 잉여는 약 1,973억 원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존재가치와 사용가치가 공존하는 환경의 경우 사용가치보다는 존재가치를 화폐금액으로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다. 설문조사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측정하여 환경 개선비용과 이득을 파악한 후 환경개선 전과 환경개선 후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환경 이외에도 화폐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문을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표 3-6. 1인당 곡류 지불의사 평가

단위: 원

	쌀	보리쌀	밀	콩	옥수수
가격(1kg)	2,300	1,595	310	1,394	645
1인당 연간 소비량	75.8	1.1	33.7	8	5
1인당 연간 소비액	174,340	1,754.5	10,447	11,152	3,225
1인당 평균 품목 연간 소비액	40,184				

3.6.3 채소류

본 논문에서는 채소류 중 대표적인 작목으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를 선정하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가격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의 통계자료를 통해 1인당 채소류의 연간 소비액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1인당 채소류 작목별 평균 연간 소비액은 6,736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설문조사결과 평균 지불 의사정도는 0.106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서 1인당 채소류 지불 의사 금액을 계산한 결과 $6,736 \times 0.106 = 714$ 원으로 도출되었으며, 200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를 약 5천만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채소류에 관한 안전성 기준 확립으로 소비자 잉여는 약 357억 원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3-7. 1인당 채소류 지불의사 평가

단위: 원

	무	배 추	고 추	마 늘	양 파
가격(1kg)	203	200	5,332	1,427	210
1인당 연간 소비량	17.2	30.2	2.2	6.2	17
1인당 연간 소비액	34,912	6,040	11,730	8,847	3,570
1인당 평균 품목 연간 소비액	6,736				

3.6.4 과실류

본 논문에서는 과실류 중 대표적인 작목으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을 선정하였으며 2005년 기준으로 가격과 1인당 연간 소비량의 통계자료를 통해 1인당 과실류의 연간 소비액을 산출하였다. 산출결과 1인당 과실류 작목별 평균 연간 소비액은 9,025원으로 도출되었으며, 설문조사결과 평균 지불 의사정도는 0.1103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서 1인당 과실류 지불 의사 금액을 계산한 결과 $9,025 \times 0.1103 = 995$ 원으로

로 도출되었으며, 200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를 약 5천만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과실류에 관한 안전성 기준 확립으로 소비자 잉여는 약 447억 원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표 3-8. 1인당 과실류 지불의사 평가

단위: 원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단감	감귤
가격(1kg)	1271	764	892	1301	692	1271
1인당 연간 소비량	7.5	8.6	4.6	8.2	4.8	15.7
1인당 연간 소비액	9,533	6,570	4,103	10,668	3,322	19,955
1인당 평균 품목 연간 소비액	9,025					

IV. 요약 및 결론

경제발전에 의한 소득의 증가로 소비자는 농식품 구매 시 안정성을 중요시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농식품보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안전한 농식품을 선호한다. 따라서 농산물 소비량의 증가를 위하여 소비선호에 맞추어 안전성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설문 조사 결과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 적을수록 통계적 접근방식과 사전적 접근방식, 사후적 접근방식을 신뢰하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직관적 접근방식을 신뢰하였다. 또한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통계적 접근방식과 사전적 접근방식을 더 신뢰하였으며, 학력수준이 낮을수록 직관적 접근방식과 사후적 접근방식을 더 신뢰하였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통계적 접근방식과 사전적 접근방식을 더 신뢰하고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사후적 접근방식을 더욱 신뢰하였다.

소비자들의 효용은 안전한 농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지불하는 지불의사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처럼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 확립은 사회전체적인 후생 증대와 더불어 안전한 식품이 거래되는 건전한 농산물 시장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2008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를 약 5천만으로 선정하였을 경우 안전성 기준 확립으로 소비자 잉여는 곡류에서 약 1,973억 원, 채소류는 약 357억 원, 과실류에서는 약 447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안전성 기준의 정립의 실효성을 위해 첫째, 농산물 및 식품에 관한 안전성

인증제도에 있어 소비자 차원의 안전성 확립 기준이 반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 및 식품을 소비하는 주체는 소비자다. 아무리 생산측면에서 안전성이 인증되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인증제도의 존재가치는 무의미해 질 것이다. 둘째, 정부차원에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위와 같은 안전성기준이 확고히 소비자들에게 확립되고 생산자 또한 그 기준에 따라 생산하더라도 정부의 감시와 규제가 없다면 안전성 기준 확립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소비자 잉여 증가분에 대한 부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부의 배분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유통단계까지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지표가 필요하다. 국민소득 증가와 외부적 환경변화는 소비에 있어 소비심리를 변화시킨다. 이는 소비자가 생각하는 안전성 기준이 현재와 미래에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년 또는 특정기간에 한해 소비자 안전성 기준 지표를 조사하고 이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이 수행한 소비자 설문을 통한 안전성 확립 논의는 앞으로 더욱 연구해야 할 가치가 있겠다.

참고 문헌

- 강광파. 2003. 「소비자가 원하는 원예산물의 품질」. 기타간행물. 한국원예학회.
- 김규동 외. 2008. 「서울지역 주부들의 친환경농산물 구매행동」. 한국식품영양과학회.
- 김명환 외. 1998. 「농산물 품질인증제도와 안전성조사제도의 발전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복란. 2007. 「춘천지역 고등학생의 식품안전성에 대한 인식도 조사」. 한국가정교육학회.
- 박재홍, 유소이. 2005.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대한 지불의사분석 - 우수농산물관리제도 사례 -」. 한국축산경영학회, 농업정책학회(구.한국축산경영학회).
- 송양훈. 2008. 「“친환경농산물” 시장,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GS&J 인스티튜트.
- 신용광 외. 2007.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양병우. 2008. 「식품안전성의 위기 : 미국산 쇠고기 파동의 본질」. GS&J.
- 이병오. 2006. 「농산물 안전성 문제 : 초점과 정책방향」. GS&J.
- 이병오. 2006. 「농산물 안전성 문제」. GS&J 강좌자료 농산물 안정성 문제. GS&J 인스티튜트.
- 이상한. 2005. 「안전성 검증에 의한 친환경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 정양모. 2007. 「우리나라의 농산물안전성관리 현황과 추진방향」. 한국농약과학회.
- 최영호 2002. 「소비자 문제와 농산물 품질」. 한국원예학회.
- 최정숙 외. 2005. 「주부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과 안전성우려의 관련 요인」. 한국식품영양과학회.
- 최정숙 외. 2007. 「농업인의 농산물 안전성 관련 정책 인지도 및 동의 정도」.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
- 최지현 외. 2001. 「주요 농축산물 안전성의 효율적 관리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지현 외. 2006. 「생산 및 수입단계의 농식품 안전성 확보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경옥. 2008. 「제품구매시 소비자의 안전추구행동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

※ 부록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중심의 안전성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대학교 농업경제학과 학생들입니다.

저희 연구팀은 “소비자의 중심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 정립”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께서 밝혀주신 견해는 저희에게 매우 유익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해서는 특정한 정답이 있을 수 없고, 응답자의 견해나 입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으며, 모든 응답자의 대답을 한꺼번에 통계 처리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만일 귀하께서 응답자 전체의 대답을 집계한 결과를 통보 받기를 원하신다면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I 안전성 기준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문 1. 친환경농산물제도, HACCP과 같은 농산물인증제도를 알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문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산물 인증제도(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유기축산물 등)의 안전성 기준을 신뢰하십니까?

- ①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② 신뢰하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신뢰한다. ⑤ 매우 신뢰한다.

문 3. 농산물 구매시 어떤 기준으로 구매하는지 순위로 표시해 주십시오.

(1순위 - 1, 2순위 - 2, 3순위 - 3, 4순위 - 4, 5순위 - 5)

- | | | | | |
|----------|----------|----------|----------|----------|
| ① 가격 | ② 안전성 | ③ 품질 | ④ 브랜드 | ⑤ 신선도 |
| () | () | () | () | () |

문 4. 귀하께서는 농산물 안전성 인증기관 중 가장 신뢰하시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민간인증기관
- ② 정부인증기관(농수산부식품부)
- ③ 연구기관(식품의약품안전청)
-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문 5. 농산물 안전성에 관련된 정보를 어느 곳에서 가장 많이 획득하십니까?

- ① 뉴스 신문 등 방송 매체
- ② 소비자 단체
- ③ 인터넷
- ④ 친인척 및 동료
- ⑤ 유통 매장
- ⑥ 기타()

문 6. 귀하께서는 주로 농산물을 어디에서 구매 하십니까?

- ① 백화점 ② 대형마트 ③ 소규모 상점 ④ 인터넷 ⑤ 농산물 직거래 ⑥ 기타()

문 7. 농산물 안전성 기준이 확립된 이후, 이 기준이 존속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생산자 교육
- ② 소비자 교육
- ③ 사회적 분위기 조성
- ④ 정부의 철저한 감시
- ⑤ 생산자 보조금 제도

문 8. 안전성 기준이 확고히 정립된 후, 안전성 기준의 신뢰제고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소비자 단체, NGO의 모니터링 강화
- ② 농산물 리콜제도의 시행
- ③ 안전성에 관련된 농산물 이력 추적 관리 시스템
- ④ 안전성 기준 위반 시 받는 형벌을 강화
- ⑤ 현행 안전성 제도의 보완

문 9.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친환경 농산물 등을 주로 구입하십니까?

- ① 매우 자주 구매한다. ② 자주 구매한다. ③ 가끔 구매한다. ④ 구매하지 않는다.

문 10. 현행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농산물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친환경 농산물 인증제도, HACCP 등)에 점수를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 ① 60점 미만 ② 61점 -70점 ③ 71점 -80점 ④ 81점 -90점 ⑤ 91점 -100점

II 다음은 안전성의 주관적 기준에 대한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매우 안전	안전	보통	불안	매우 불안
문 1. 어떤 농산물을 100만 명이 섭취한 후 1명이 앓았다면 그 농산물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2. 농산물 구매 후 물에 씻은 후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농산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3. 외관 상 농산물을 봤을 때 깨끗하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4. 농산물 섭취 후 짧은 시간 안에 아프지 않았다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문 5. 위의 문1부터 문4 중 귀하께서 안전성 기준을 생각하신다면 농산물의 안전성 기준은 몇 번 질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겠습니까?	① 1번 질문 ② 2번 질문 ③ 3번 질문 ④ 4번 질문				
문 6. 농산물은 생산자에게서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많은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 중 농산물을 구매하실 때 안전성이 중시되어야 할 절차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생산단계에서 농약, 화학비료를 적게 사용해야 한다. ② 유통과정에서 방부제,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③ 판매점에서 적절하게 냉장 보관해야 한다. ④ 기타()				

Ⅲ 다음은 품목 종류별 안전성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품목 1. 채소류/야채류

1. 귀하께서는 한 달에 소득의 몇 %를 채소류 및 야채류 구입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소득의 5% ② 소득의 10% ③ 소득의 15% ④ 소득의 20% ⑤ 소득의 25%

2. 안전성 기준의 확립으로 안전성이 확고히 확보되는 경우 기존의 농산물 가격보다 얼마나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예 : 의향이 없으시면 0%)

기존 농산물 가격의 ()%

3. 채소 및 야채류의 잔류농약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4. 채소 및 야채류의 중금속 함량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5. 채소 및 야채류의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6.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한 달에 채소류/야채류 구매에 얼마나 더 소비하시겠습니까?
① 기존의 5% ② 기존의 10% ③ 기존의 15% ④ 기존의 20% ⑤ 기존의 25%

품목 2. 곡류

1. 귀하께서는 한 달에 소득의 몇 %를 곡류 구입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① 소득의 5% ② 소득의 10% ③ 소득의 15% ④ 소득의 20% ⑤ 소득의 25%

2. 안전성 기준의 확립으로 안전성이 확고히 확보되는 경우 기존의 농산물 가격보다 얼마나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예 : 의향이 없으시면 0%)

기존 농산물 가격의 ()%

3. 곡류의 잔류농약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4. 곡류의 중금속 함량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5. 곡류의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6.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한 달에 곡류 구매에 얼마를 더 소비하시겠습니까?

- ① 기존의 5% ② 기존의 10% ③ 기존의 15% ④ 기존의 20% ⑤ 기존의 25%

품 목 3. 과 실 류

1. 귀하께서는 한 달에 소득의 몇 %를 과실류 구입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 ① 소득의 5% ② 소득의 10% ③ 소득의 15% ④ 소득의 20% ⑤ 소득의 25%

2. 안전성 기준의 확립으로 안전성이 확고히 확보되는 경우 기존의 농산물 가격보다 얼마나 더 지불하실 의향이 있습니까?(예 : 의향이 없으시면 0%)

기존 농산물 가격의 ()%

3. 과실류의 잔류농약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4. 과실류의 중금속 함량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5. 과실류의 화학비료 사용 여부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 ① 매우 둔감하다 ② 둔감하다 ③ 보통이다 ④ 민감하다 ⑤ 매우 민감하다

6.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한 달에 과실류 구매에 얼마를 더 소비하시겠습니까?

- ① 기존의 5% ② 기존의 10% ③ 기존의 15% ④ 기존의 20% ⑤ 기존의 25%

Ⅳ 다음은 인구 조사 관련 내용입니다.

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40세 이하 ② 41세 - 45세 ③ 46세 - 50세 ④ 51세 - 55세 ⑤ 56세 이상

2. 귀하 가정의 월 평균 수입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150 만원 이하
② 151 만원 - 200 만원
③ 201 만원 - 250 만원
④ 251 만원 - 300 만원
⑤ 301 만원 이상

3. 귀하의 직업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주부 ② 회사원 ③ 공무원 ④ 전문직 ⑤ 자영업 ⑥ 농업 ⑦ 기타 ()

4.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초등학교 졸 ② 중학교 졸 ③ 고등학교 졸 ④ 대학교(전문대학교) 졸 이상

5. 귀하 가정의 자녀수는 몇 명이십니까?

- ① 1명 ② 2명 ③ 3명 ④ 4명 ⑤ 5명 이상

* 설문조사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